



Study on Optician's Job Value Perception according to Satisfaction of Ophthalmic Optics Student's Major Subject

Young Mi Kim, Dae Kwang Jang, Yee Rin Jung, Ju Hak Lee, Byung Ho Ha, and Ki Hong Kim*

Dept. of Optometry and Vision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Gyeongbuk 38430, Korea
(Received July 31, 2018; Revised August 20, 2018; Accepted August 28, 2018)

Purpose: This study was aimed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phthalmic optics students's major subject satisfaction and optician's job value perception. **Method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155 students from the Daegu and Busan area of ophthalmic optics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during May 2018. The questionnaire included questions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otivation to enter the university, satisfaction with major subjects, optician's job value perception and optician's job value perception in society. Statistical analysis used SPSS 22.0 program to correlate, frequency analysis. **Results:** Of the total 155 students, the satisfaction rate of major subjects was very satisfied 21 (13.5%), Satisfied 75 (48.4%), usually 51 (32.9%), dissatisfied 4 (2.6%) and very unsatisfied 4 (2.6%). Optician's job value perception was very high 9 (5.8%), high 46 (29.7%), usually 85 (54.8%), low 12 (7.7%), very low 3 (1.9%).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of optician's job value perception according to satisfaction of ophthalmic optics student's major subject,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major subject and the level of perceived value of optician's job value percept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r = .459$, $p < .001$) **Conclusions:** It is highly related to the high major subject satisfaction of ophthalmic optics students and the high level of optician's job value perception. It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major subject in order to increase the perception of job value an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ocial consciousness through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 and welfare of optician.

Key words: Optician, Optometrist, Ophthalmic optics students, Occupational value perception, Major subject satisfaction, Optician's job value perception

서 론

국내의 대학구조는 학과나 전공 영역별로 구성되며, 전공은 장래의 진로와 대부분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1] 또한 전공 선택이 개인의 대학생활 뿐 아니라 졸업 후 직업을 선택하고 장래의 삶을 살아가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2]

Kim과 Ha는 전공이 가지는 사회적 소속감을 포함하여 “학과(학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학과만족에 대해,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와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이라고 하였다.^[2,3] 이렇게 볼 때 학생들은 전공과목을 공부할 때 앞으로 선택할 진로와 직업에 얼마나 관련되고, 도움이 되는지, 현장 업무에서 사용 가능한 학문인지에 대해 비교하여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공과목의 만족도는 본인이 설정한 진로와 직업에 있어 전공과목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업무에 종사하며,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이다.^[4] 안경사 양성교육은 1977년 안경통신교육을 시작으로 1982년에는 한국안경고등기술학교가 담당하였다. 그 이후 1984년 대구보건대학에 안경광학과가 최초 개설되었으며,^[5] 1988년 안경사 면허제도가 도입되었다.^[6]

대한 안경사 협회에서 공시된 2018년 전국의 안경광학과의 수는 총42개이며 그중 4년제는 12개, 3년제는 26개, 2년제는 4개의 대학이 있으며 이러한 대학은 안보건을 책임지는 예비 안경사를 배출하기 위해 전공 관련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전문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통계에 의하면 2008년~2017년까지 매년 평균 1,496명이 국민 안보건향상에 이바지할 전문인으로서 배출되고 있다.^[7] 하지만 안경사 시험 초기에 편성된 시험 과목의 종류와 과목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는 연구도 있으며^[8] 안경사 면허 합격을 목적에 둔 최

*Corresponding author: Ki Hong Kim, TEL: +82-53-850-2551, E-mail: kkh2337@cu.ac.kr

단기 양성 코스로 교육수준의 질적 불균형을 지적한 연구도 있다.^[9,10]

학생들이 직업과 진로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흥미, 적성, 가치, 능력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직업의 가치는 일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 일의 적응도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11]

본 연구는 미래에 국민의 안보건을 책임질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전공 관련 견해와 만족도를 알아보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안경사라는 직업 가치인식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18년 5월 한 달 동안 대구와 부산지역의 안경광학과 3, 4년제 학생 1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으로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는 문항, 안경광학과 진학동기, 전공과목 만족도와 안경사 직업의 가치인식도, 안경사 직업의 사회적 가치인식 등에 관한 문항이 있었다. 통계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상관분석을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설문 참여자 수는 총 155명이며, 3년제 안경광학과 학생 107명(69%), 4년제 안경광학과 학생 48명(31%)이며, 남성이 85명(54.8%), 여성이 70명(45.2%), 그 중 20대는 141명(91%), 30대 9명(5.8%), 40대 5명(3.2%)으로 분포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Characteristic	Categories	Frequency(%)
Gender	Male	85(54.8%)
	Female	70(45.2%)
Age	20's	141(91%)
	30's	9(5.8%)
	40's	5(3.2%)
Grade	1st	38(24.5%)
	2nd	60(38.7%)
	3nd	44(28.4%)
	4nd	13(8.4%)
Education level	College	107(69%)
	University	48(31%)
Marital status	Unmarried	145(93.5%)
	Married	10(6.5%)

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 38명(24.5%), 2학년 60명(38.7%), 3학년 44명(28.4%), 4학년 13명(8.4%)이며, 미혼은 145명(93.5%), 기혼은 10명(6.5%)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안경광학과 선택 경위 및 진학 목적

안경광학과를 선택한 경위는 부모님과 지인의 권유가 64명(41.3%)으로 가장 높았으며, 스스로의 선택이 46명(29.7%), 성적에 맞춰 진학하는 경우가 22명(14.2%), 취업 걱정이 덜한 전문직이라서 선택한 경우는 18명(11.6%), 기타 5명(3.2%)으로 나타났다(Table 2). 부모님과 지인의 권유로 안경광학과에 진학한 경우가 41.3%로 가장 많았다. 이는 국내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은 정적상관이 있었으며^[12-15]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가족과 중요한 타자와의 결속,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격려와 충고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다수의 연구가 뒷받침된 결과로 보여 진다.^[16-19] 또한 스스로의 전공 선택이 29.7%였고, 성적에 맞춰 진학한 경우가 14.2%, 전문직이라서 선택한 경우가 11.6%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Lee는 본인의지에 의한 자발적 전공 선택과 타인의존에 의한 의존적 전공 선택으로 나누었다. 전공선택 동기와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개인적 전공선택 동기자가 사회적 전공선택 동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이를 참고하였을 때 29.7%의 비율이 스스로 전공을 선택한 것이 긍정적인 의미로 보여 진다.

Table 2. Reason of major selection

	Frequency	Percent(%)
Suggestion of parents and acquaintances	64	41.3%
Choice of oneself	46	29.7%
Go to school according to grade	22	14.2%
Professional occupation	18	11.6%
Etc	5	3.2%
Total	155	100%

Table 3. Occupation Considered at Admission

	Frequency	Percent(%)
Optician	83	53.5%
Optometrist	30	19.4%
Contact lens company	20	12.9%
Glasses related company	14	9.0%
Other job	5	3.3%
Etc	3	1.9%
Total	155	100%

입학 시 고려한 직업으로는 안경사 83명(53.5%), 검안사 30명(19.4%), 콘택트렌즈 관련회사 취업 20명(12.9%), 안경관련회사 취업이 14명(9%), 타 직업이 5명(3.3%), 기타가 3명(1.9%)으로 나타났다(Table 3).

3. 전공과목 만족도와 안경사 가치인식도

총 155명 중 현재 배우고 있는 전공과목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21명(13.5%), 만족 75명(48.4%), 보통 51명(32.9%), 불만족 4명(2.6%), 매우 불만족 4명(2.6%)으로 나타났다(Fig. 1). 만족이 48.4%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보통 32.9%, 매우 만족이 13.5%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생각하는 안경사라는 직업의 가치인식수준은 매우 높다가 9명(5.8%), 높다 46명(29.7%), 보통 85명(54.8%), 낮다 12명(7.7%), 매우 낮다 3명(1.9%)으로 나타났다(Fig. 2). 본인이 생각하는 안경사의 직업 가치인식은 보통과 높이에 많은 수가 선택을 하였다. 반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안경사에 대한 가치인식이 어떠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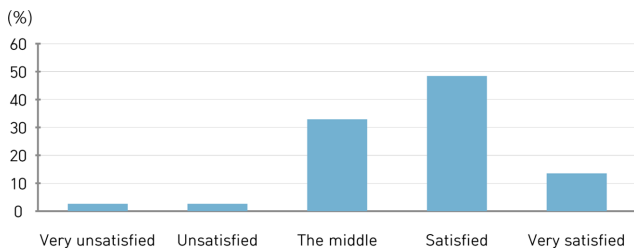


Fig. 1. Major subject satisf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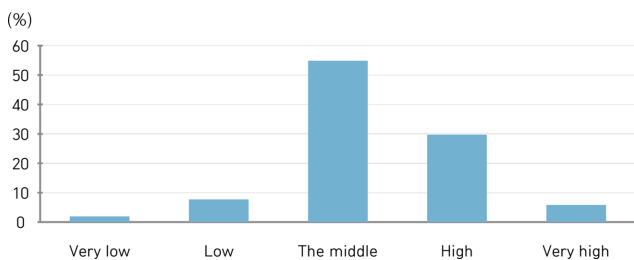


Fig. 2. Optician's job value perce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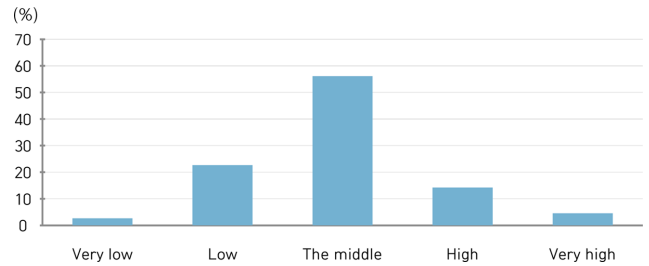


Fig. 3. Optician's job value perception in society.

같은지의 질문에 매우 높다 7명(4.5%), 높다 22명(14.2%), 보통 87명(56.1%), 낮다 35명(22.6%), 매우 낮다 4명(2.6%)으로 보통과 낮다에 많은 수가 선택하였다(Fig. 3).

전공과목 만족도에 따른 학생들이 생각하는 안경사 직업가치인식을 상관 분석한 결과는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전공과목 만족도와 안경사 직업가치인식 수준 간에는 정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r = .459, p<.001). 전공과목 만족도가 높은 것과 안경사 가치인식수준이 높은 것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4. 면허 취득 후 진로 및 취업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

안경광학과 학생 155명 중 졸업 후 안경사 관련 업종에서 일할 것이라고 응답한 수는 138명(89%)에 해당하며, 10명(6.5%)은 다른 일을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타 7명(4.5%)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Table 5).

졸업 후 취업하고 싶은 곳은 안경원 84명(54.2%), 안과 31명(20%), 콘택트렌즈 관련회사 16명(10.3%), 안경 관련

Table 5. Select a career related to a major

	Frequency	Percent (%)
Major related jobs	138	89%
Other job	10	6.5%
Etc	7	4.5%
Total	155	100%

Table 4. Correlation between Major Subject Satisfaction and Optician's Job Value Perception

	Major Subject Satisfaction	Optician's Job Value Perception
Major Subject Satisfaction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1
	Significance level (both)	.459**
	N	.000
Optician's Job Value Perception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1
	Significance level (both)	.459**
	N	.000

Table 6. Place to want to work after graduation

	Frequency	Percent (%)
Optical Shop	84	54.2%
Ophthalmic clinic	31	20%
Contact lens company	16	10.3%
Glasses related company	11	7.1%
Other job	6	3.9%
Graduate school entrance	4	2.6%
Etc	3	1.9%
Total	155	100%

Table 7. Important points when choosing a job

	Frequency	Percent (%)
Salary	55	35.5%
Working environment	54	34.8%
Working hours	29	18.7%
Colleague	9	5.8%
Location	4	2.6%
Social recognition	4	2.6%
Total	155	100%

회사 11명(7.1%), 타 직업 6명(3.9%), 대학원 진학 4명(2.6%), 기타 3명(1.9%)으로 나타났다(Table 6).

취업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월급 55명(35.5%), 근무환경 54명(34.8%), 근무시간 29명(18.7%), 동료 구성원 9명(5.8%), 근무지 위치와 사회적인식이 각각 4명(2.6%)순으로 나타났다(Table 7).

결론

학생들이 안경광학과에 진학하는 이유로 가족과 지인의 권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스스로의 선택이 그 뒤를 따랐다. 또한 전공과목 만족도가 높은 것과 안경사 가치인식수준이 높은 것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경광학과 학생들이 직업관련 깊이 있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며 만족감이 높아질 때 안경사라는 직업의 가치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사회적으로 안경사라는 직업을 바라보는 가치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때 안경사의 근무 환경과 복지의 개선을 통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졸업 후 전공 관련된 일을 할 것이라고 89%가 대답하였으며, 54.2%가 안경원 근무를 원했으며, 20%는 안과에

취업하기를 원했다. 취업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월급, 근무 환경, 근무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급변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매년 전국의 안경광학과에는 미래의 안경 산업을 이끌고 책임질 신입생이 입학하고, 안경사로 배출되고 있다. 학교 일선에서는 전공과목의 체계적인 틀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되고 있는 안경 산업에 맞춘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며, 더불어 안경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학생들에게 그 가치를 알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직업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산업 현장에서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며 배출된 안경사들이 존중받고,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과 사회의 변화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보려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REFERENCES

- [1] Jeong BY. The effects of motivation for major choice of university students on vocation choice factors. MS Thesis. Kyonggi University, Suwon. 2010;6-7.
- [2] Yun JY. A study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junior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cience.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2014;23(2):111-132.
- [3] Kim KH, Ha HS.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00;1(1):7-20.
- [4] Bae YJ, Kim JB, Kim KH, Han SG. A study on optician's job satisfaction and price reliability in accordance with place of purchase. Korean J Vis Sci. 2016;18(4):489-496.
- [5] Lee OJ, Shin JA, Jung SH. A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 in ophthalmic optics. J Korean Ophthalmic Opt Soc. 2010;15(4):319-328.
- [6] Lee WS, Ye KH. A study on the supply and demand of manpower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optical stores and optometrists in Korea. J Korean Ophthalmic Opt Soc. 2017;22(4):279-290.
- [7]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Passing rate of national examination by year, 2018. [http://www.kuksiwon.or.kr/Publicity/ExamStatistic.aspx?SiteGnb=5&SiteLnb=2\(31 August 2018\)](http://www.kuksiwon.or.kr/Publicity/ExamStatistic.aspx?SiteGnb=5&SiteLnb=2(31 August 2018)).
- [8] Sung PJ, Jon KC. A study on subjects for the Angyoungsa license examination managed by Guksiwon, reforming the curriculum and syllabus of the optometry and opticianary in Korea. Korean J Vis Sci. 1999;1(1):45-65.
- [9] Mah KC, Lee HJ, Lee JH, Lee HJ. The projection of the demand and supply for opticianry manpower. Korean J Vis Sci. 2001;3(1):25-40.
- [10] Lee OJ, Park HK. Study on the usefulness of the classification in ophthalmic optics' curriculum for students and optometrist-focusing on three-year educational system in

- Gyeonggi province. J Korean Ophthalmic Opt Soc. 2013; 18(4):413-428.
- [11] Seon HY, Hwang MH, Kim YB. The change of adolescents' value pursuing in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09;10(1):155-173.
- [12] Go TY.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PhD Thesis. Mokpo National University, Muan. 2008;5-23.
- [13] Park JE.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2006;18-23.
- [14] Cho MS. The influence of ego-ident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late adolescence. PhD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2007;56-70.
- [15] Song JY. Effe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by college students. MA Thesis. Yeungnam University, Kyongsan. 2003;31-43.
- [16] Tolbert EL.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0.
- [17] Han SH.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indecision of university students. MA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2003;5-44.
- [18] Kracke B. Parental behaviors and adolescents' career exploration. Career Dev Q. 1997;45(4):341-350.
- [19] Kang R, Lee M.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career attitude, occupation value,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n J Hum Ecol. 2011;20(5):941-953.
- [20] Lee J. A study on job selection reasons and choice motives of major for college students in culinary and food service in Busan. Journal of regional studies. 2011;19(2):69-85.

안경광학과 학생의 전공과목 만족도에 따른 안경사 직업 가치 인식의 연구

김영미, 장대광, 정예린, 이주학, 하병호, 김기흥*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경북 38430

투고일(2018년 7월 31일), 수정일(2018년 8월 20일), 게재확정일(2018년 8월 28일)

목적: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전공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안경사라는 직업 가치인식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2018년 5월 한달 동안 대구와 부산지역의 안경광학과 3, 4년제 학생 1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으로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는 문항, 안경광학과 진학동기, 전공과목 만족도와 안경사 직업의 가치인식도, 안경사 직업의 사회적 가치 인식 등에 관한 문항이 있었다. 통계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상관분석을 하였다. **결과:** 총 155명 중 현재 배우고 있는 전공과목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21명(13.5%), 만족 75명(48.4%), 보통 51명(32.9%), 불만족 4명(2.6%), 매우 불만족 4명(2.6%)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생각하는 안경사라는 직업의 가치인식수준은 매우 높다가 9명(5.8%), 높다 46명(29.7%), 보통 85명(54.8%), 낮다 12명(7.7%), 매우 낮다 3명(1.9%)으로 나타났다. 전공과목 만족도에 따른 학생들이 생각하는 안경사 직업가치인식을 상관 분석한 결과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전공과목 만족도와 안경사 직업가치인식 수준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459, p < .001$). **결론:**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전공과목 만족도가 높은 것과 안경사 가치인식 수준이 높은 것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안경사 직업가치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전공과목 만족도를 높이고, 더불어 안경사의 근무 환경과 복지의 개선을 통한 사회적인 인식변화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안경사, 안경광학과 학생, 직업가치인식, 전공과목 만족도, 안경사 직업 인식